

조선문학가동맹의 창작 방법론 연구*

- 1946년판 『조선소설집』**을 중심으로 -

박필현***

|| 차례 ||

- I. 서론
- II.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적 목표와 『조선소설집』의 위치
- III. 진보적 리얼리즘의 스펙트럼
: 현실의 특수성, 그 소거 혹은 수용
- IV. 공동적 주체를 위한 호명과 응대
: 개별적·집단적 정체성의 재구성
- V. 결론

【국문초록】

조선문학가동맹은 1945년 12월 13일에 결성된 해방기의 대표적 좌익문학인 단체이다. 민족문학을 기치로 내건 조선문학가동맹은 창작방법론으로 진보적 리얼리즘을 내세웠다. 『조선소설집』은 조선문학가동맹이 그 단체의 이름을 걸고 “민주주의 민족문학의 이념”의 “침전물”로서 의미있다고 판단된 것을 모아 1947년 6월에 간행한 작품집이다. 본고는 진보적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론의 구체적 면모와 그 의미를 『조선소설집』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525].

** 조선문학가동맹 소설부위원회편, 『조선소설집-1946년판』, 아문각, 1947.

이하 본고에서 서명(書名) 없이 쪽수만 표기된 작품 인용은 모두 이 대상 작품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조선소설집』은 조선문학가동맹이 말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의 다양한 면면을 확인케 한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공히 민주주의 민족문학과 진보적 리얼리즘을 내세웠지만 실상 그 내부의 목소리까지 단일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인민에의 복무”나 긍정적 영웅의 형상화를 주장하거나 “객관적 현실을 주로 하는 리얼리즘”이나 민중연대성을 앞세우는 등, 서로 다른 논리에 근거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특정의 논리에 부합, 이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논리에 부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어떤 논리와는 잘 맞는 것이 오히려 다른 논리와는 상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리고자 한 것과 그려진 것은 겹쳐지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미끄러지고 부딪치기도 한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결국 진보적 리얼리즘을 통해 선도와 복무의 문학보다는 가급적 많은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적 연대의 문학을 모색했으며 『조선소설집』은 그 노력의 일면을 보여준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작품의 성향 역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조선소설집』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조선문학가동맹의 주류적 입장, 곧 “혁명적 로맨티즘을 계기로서 내포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의 구현에 보다 가깝다 하겠다. “아이디얼리즘”만을 내세우는 대신 필진만큼이나 다양한 성향의 작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작품들은 국가건설 및 새로운 민족문학을 과제로 한 시기에 민주주의 민족문학의 성취를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리하여 적절한 첫 걸음이라고 할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고민과 탐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전개가 불가능해졌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출발점에 있어서만큼은 그 나름 정당한 위치에 서 있었다 하겠다.

주제어 : 조선문학가동맹, 창작방법론, 조선소설집, 진보적 리얼리즘, 정체성 재구성

I. 서론

1945년 8월 15일 정오 소위 ‘옥음방송(玉音放送)’을 통해 ‘대동아전쟁’의 종결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 선언되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남한

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른바 해방기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할 수 없었던 ‘역사적 소용돌이’의 닫힌 공간”¹⁾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기 정치체제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만큼 8.15직후에는 “한국인들은 두 사람이라도 식탁에 마주앉으면 신정치 단체를 만든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한반도 전역에 정치적 열정이 넘쳐났다. 문학회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서로 다른 현실 진단과 정치적·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었다.²⁾ 해방된 다음날 조선문학건설 본부가,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1945년 12월 13일 이 두 단체가 통합되어 조선문학가동맹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국가 수립의 기획이 결국 남북 분단으로 귀결되며 이후 이 시기는 흔히 좌우익의 대립,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설명되어 왔다. 물론 그간

1) 김영택, 『해방공간 소설의 풍자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17집, 2005, p.32.

2) 해방 이후 가장 먼저 결성된 단체인 조선문학건설본부는 1945년 8월 16일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뒤이어 이기영, 한설야, 한효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이 같은 해 9월 15일에 결성되었다. 그리고 1945년 12월 13일 두 단체가 통합되며 조선문학동맹이 결성된다. 그리고 1946년 2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전국조선문학자대회를 통해 조선문학동맹에서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그 명칭 변경을 확정한다. 조선문학가동맹은 흔히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과 일치하는 문화투쟁집단으로 일컬어지는데(임현영, 『8.15직후의 민족문화관-문학가동맹과 민족문학론』, 『역사비평』 1987년 가을호 제1집, p.137.), 주지하다시피 이후 주요 구성원 다수의 월북 그리고 1946년 5월 정판사 사건과 10월 항쟁 및 1947년 총검거 사태 등을 겪으며 급속도로 그 위치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결성 초기 조선문학가동맹은 좌파 문인들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회원 층 확보에 성공하여 문단을 주도해 나갔다. 이 외에 이른바 우파 계열의 단체로는 1945년 9월 8일 박종화, 김광섭, 이헌구 등에 의해 결성된 조선문화협회가 있다. 이 단체는 이후 1945년 9월 18일 중앙문화협회로 재결성되었다. 1946년 3월 13일에 이르러 우익 단체들은 전조선문필가협회로 규합되었고, 그 산하에 김동리 등이 중심이 된 조선청년문학가협회(1946년 4월 4일)가 만들어졌다.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지만 해당 시기 문학 연구의 주된 경향 역시 좌우의 대립 구도에 따른 문학 운동론에 주목하는 것이었고, 대표적 좌익문학인단체라 할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한 접근 또한 민중성과 당파성 혹은 조직론이나 대중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³⁾ 그러나 당시 정치적 과제와 문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것은 실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해방기 많은 문학인들이 정치적 과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았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또 다른 피할 수 없는 과제, 일제강점기라는 시공간을 거치며 구축되어 온 근대 문학에 대한 성찰과 문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과제가 함께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당대 제기된 비평을 통해 확인되는 주요한 문학적 고민 중 하나는 각각의 선명한 입장들을 어떻게 미적으로 형상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작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 어떤 인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민족문학을 기치로 내건 조선문학가동맹이 그를 위한 창작방법론으로 진보적 리얼리즘을 내세운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소설집』은 1947년 6월 20일, 조선문학가동맹 소설부위원회(朝鮮文學家同盟小說部委員會)가 그 단체의 이름을 걸고 야심차게 묶어낸 소설집이다. 본

3)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의 논저를 들 수 있다.

권영민,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 운동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이 외에도 김재용(『해방직후 문학운동과 두 가지 민족문학』, 『녹두꽃』2호, 1989.), 박정선(『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화대중화 담론과 조직적 실천』, 『어문학』, 2006.), 윤여탁(『해방정국의 문학운동과 조직에 대한 연구』, 『한국학보』52집, 1988년 가을.), 이우용(『문건과 프로문학의 조직과 운동노선』, 『실천문학』, 1989년 가을.), 남원진(『해방기 비평 연구 I』, 『겨레어문학』제29집 2002 : 『해방기 비평 연구II』, 『겨레어문학』제30집, 2003.)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고는 이러한 『조선소설집』을 통해 이들이 내세운 창작방법론과 실제 작품 사이, 그 상관관계의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념 및 방법론과 실제 작품 간의 거리, 그리고자 한 것과 그려진 것 간의 중첩 혹은 그 간극에 대한 확인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적 입장 및 목표와 해당 소설집의 위치를 점검한 후, 실제 작품을 통해 형상화된 인물 및 사건의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적 목표와 『조선소설집』의 위치

조선문학가동맹은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의 통합으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 이 두 단체의 통합에 있어 주도권을 잡은 것은 조선문학건설본부측이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측은 당시 조선이 처한 현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 단계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제시한 문학적 목표 역시 프로레타리아 계급 문학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이었다.⁴⁾ 물론 이것이 일련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4) 임화는 1946년 2월 8일~9일에 열린 전국조선문학자대회의 보고 연설 중 직접적으로 “계급적인 문학이나? 민족적인 문학이나?”라는 질문을 던진 후 “완전히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이라고 답하고 있다.

“계급적인 문학이나? 민족적인 문학이나?<...>조선 문학 사상의 가장 큰 객관적 사실은 무엇이나 하면 첫째로 일본 제국주의 문화지배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둘째로 봉건문화의 유물이 청산되지 아니한 것 등등인데, 어째서 이러한 유제가 아직도 잔존해 있는가 하면 조선의 모든 영역에 있어 민주주의적 개혁이 수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번 말한 바와 같다. 조선문학의 발전과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일본 제국주의가 붕괴된 오늘, 우리 문학의 일로부터의 발전을 방해하는 이러한 잔재의 소탕이 이번에 조선문학의 온갖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의 제거없는 어떠한 문학도 발생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건설된 문학은 어떠한 문학이나 하면 그것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결성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이 문학적 주체로 언표화한 것은 계급이 아닌 민족이었다.⁵⁾ 조선문학가동맹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운동의 주체로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중간층의 진보적 시민까지를 포괄하여 설정하였던 것이다.⁶⁾ 진보적 리얼리즘이라는 방법론 역시 이러한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조선문학가동맹측에 의해 호명된 민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민족이라 해도 역사적으로는 잡종이라거나 국민의 동일은 있어도 민족의식은 기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⁷⁾ 등을 통해 이때의 민족이 단순히 혈연이나 지연에 따른 개념이 아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계급성과 당파성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민족이란 결국 의식의 소산이며 “이질성의

완전히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 이외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민족문학이야말로 보다 높은 다른 문학의 생성, 발전의 유일한 기초일 수가 있는 것이다.” (임화,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6.)

5) 해방기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과제로 받아들인 것이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민족국가의 수립 및 유지 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문학이념으로 민족문학을 내세운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해방기, 민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절대적 가치로 통용되고 있었던 만큼 대개의 경우 민족 개념을 부인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논리에 맞게 전유하고자 하였다.

6) 이는 전국조선문학자대회를 준비하며 가맹의사를 타진한 문인의 수가 총 23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입장은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의 안막이나 윤세평 등에 의한 비판을 통해 역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안막 등은 우경화, 초계급성, 당파성 부재 등을 골자로 하여 조선문학가동맹이 추상적인 민족 개념에 안주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청량산인(『민족문학론-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건설을 위하여』, 『문학』 7호, 1948. 4.)은 전인민적 민주개혁과 전인민적 민족문화건설이 오히려 무산계급의 계급성이나 이익과 완전히 합치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기도 하다. 하정일(『해방기 민족문학론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은 당파성의 강조에 비해 이와 같은 포용적 원칙이 민족문학의 성격과 원리에 기반하여 볼 때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7) 박치우, 『민족문화 건설과 세계관』, 『신천지』 1권 5호, 1946. 6.

격조”를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점 역시 짚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때의 민족은 무목적의 모호한 혈연이나 지연 집단이 아니라 나름의 공통의 목적 하에 현실에 참여하며 함께 저항하는 집단에 가깝다. 그리고 그 공통의 목적은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노선』(『해방일보』 1946년 2월 9일)을 비롯해 전국조선문학자대회의 보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주의적 민족문화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이익과 발전을 담보해내는 문화이다. 요컨대 조선문학가동맹은 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었고, 이때 이들이 설정한 민족이란 공통의 목적 하에 현실에 참여하고 저항하는 집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이 공유해야 할 목적은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주의적 민족문화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이익과 발전을 담보해내는 문화였던 것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해마다 시와 소설 중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이었다. 『조선소설집』은 원래 연속 간행물로 기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는 애초의 기획과는 달리 단발적 사업에 그치고 말았고, 이로 인해 1946년판 『조선소설집』은 『조선시집』(1947년 3월 발간)과 더불어 이 기획의 유일한 성과물이 되었다.

해방 이후 남북한 각각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에 정세는 매순간 급변했었다. 『조선소설집』(1947년 6월 15일 인쇄, 6월 20일 발간)이 간행된 1947년은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체제선택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던 시기이다. 물론 그 이전인 1945년 9월 18일에 중앙문화협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1946년 3월 13일에는 김구와 이승만이 참석한 상태로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대회가 치러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해방 직후 문학계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조선문학가

동맹이었다.⁸⁾ 그러나 1946년 4월 4일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결성, 같은 해 5월 정관사 위폐사건 발생, 10월 박헌영의 월북 등 1946년을 지나며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46년 7월에 이르면 남로당에서는 “남조선의 무조건적인 북조선화”를 도모한다는 ‘신전술’을 채택하기에 이른 다.⁹⁾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문화 및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 1946년도 하반기에는 문학과 대중의 유리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문화 씨클 운동’이 제기되었고 ‘문화옹호 남조선 문화인 예술가 총결기 대회’¹⁰⁾를 거쳐 1947년에 이르면 문화공작대가 편성되기도 했다. 각부위원회 중 소설부위원회편 소설집인 『조선소설집』과 특수위원회 중 농민문학위원회편 소설집인 『토지』의 잇따른 간행은 이 같은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대중화를 위한 창작의 강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련의 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은 『조선소설집』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토지』의 간행사는 물론¹¹⁾

8) 장사선은 1945년 8월부터 1950년에 이르는 시기를 해방 1기부터 3기까지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45년 8월부터 1947년 2월까지가 1기 좌익 전횡기, 1947년 2월부터 1948년 8월까지가 2기 좌우의 논쟁기, 1948년 8월 이후 1950년 6월까지가 3기 우익 정착기이다. (장사선, 『해방문단의 비평사』,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2002.)

9)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p.99.

10)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산하 모든 단체들이 동원되었으며 1947년 2월 13일에 열렸다.

11) “농민은 땅과함께 책을 요구한다. (…중략…) 땅을 주어 굶지않게 하고 책을 주어 깨우치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도 당당한 인민의 나라로서 세계민주주의연합국과 어깨를 겨누어 나갈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독립에 있어 가장 중대한문제인 토지개혁이 남조선엔 아직 실시되지 못하여 책으로써 그것을 촉진해야만 될 시급한 형편이라면 농민문학에 종사하는 문학가의 임무야말로 얼마나 더 크다 할것인가. (…중략…) 여기에 모은 것은 주로 허재 남조선을 중심으로 작자와 작품이고, 『개벽(開闢)』은 북조선토지개혁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머리에 골라 넣었다. (…중략…) 오늘날 시급한 요청에 순응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옳은 노선으로 이끌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수있을…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편집하였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조선문학가동맹농민문학위원회편, 『토지』 간행사, 아문각, 1947.)

『조선시집』의 서(序)¹²⁾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농민으로하여금 옳은 노선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작품들을 선별하였다거나 조국과 자유와 “싸우는 시”를 강조하는 등이 그것이다. 『토지』뿐만 아니라 정기적 연속 간행물로 기획된 『조선시집』 역시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소설집』의 경우는 어떨까. 서문에서 소설부위원회가 밝힌 간행의 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일언이폐지하면 민주주의민족문학 건설을 맞기위함이었고 그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민족문학의 이념을 갖는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이념을 위하여 행동하는것으로써 비로소 성과되는것이므로 우리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작품행동과 함께 전국문학자대회의개최 조선문학동맹결성 등등 문학운동의 직접적인 힘찬 행위가 표면에 나타났든 것이다.

그러한 표면적인 현상이 있으면 그 조류의저하에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침전물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 모아놓는 우리의 작품집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일게며 문학의 작품은 항상 이러한 법칙아래에서 결과되는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우리는 이 작품집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 또 첫수칼에 배불트라

12) “조국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죽고 가친 수천 수만의 동포와 더불어 시를 지었기 때문에 벌써 한 사람의 시인은 감옥으로 갔고,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흉적(凶賊)처럼 쫓기는 동포들과 더불어, 노래를 부를수 있기때문에 숫한 시인들은 무기를 휴대한 전과범처럼 추급(追及)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조국의 자유없이는 시의 자유도없이 되었고 시의 자유없는 또 조국의 자유도 없이된 오늘, 자유를 달라고 웨치는 인민의 소리를 떠나서 시의 소리가 있을수도 없이 되었으며 자유를 위하여 흘리는 인민의 피를 떠나서 시가 써질수도 없이 되었다. (...중략...)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시에 영광이 있으라.” (조선문학가동맹편, 『조선시집』 서, 아문각, 1947.)

위에서 언급된 감옥으로 간 한 사람의 시인은 유진오이다. 유진오는 1946년 9월 1일 국제청년데이 기념식장에서 「누구를 위한 벽차는 우리의 젊음이나?」를 낭독했다가 투옥, 1947년 5월에 석방되었다.

라는 말맛다나 그렇게 만족할수도 없다. (…중략…) 될수있으면 과거1년간의 우리 문학작품속에서 최고수준의것을 추리라하였으나 출판사정 편집관계등으로 장단에 제한을 두어 이백자 삼사십매정도에 이르는바 단편소설만을 골라서쥘다. (서문)

비슷한 시기에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설집』의 서문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개입 혹은 이념적 측면이 고려된 것임을 언급하는 대신 문학적 목표로 민주주의 민족문학 건설이 재차 확인·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편집진은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수록 작품을 단편으로 한정하였음을 전제한 후 작품 선별의 기준으로 “과거1년간의 우리작품속에서 최고수준의 것”을 고르려고 하였다고 밝힌다. 요컨대 『토지』나 『조선시집』이 상대적으로 당대 정치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1947년에 발간된 1946년판 『조선소설집』의 수록 작품들은 정세에 대한 강조가 아닌 조선문학가동맹의 최초 목표에 값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야심찬 기획과 편찬 의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설집』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문학가동맹이 기관지 『문학』을 비롯해 『우리문학』 『문학평론』 등의 다양한 지면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론이 승하였다는 점, 『조선소설집』이 최초 기획과는 달리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 수록된 작품의 완성도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하겠다. 하지만 특정 시기 문단을 주도해 나갔던 조선문학가동맹이 단체의 이름을 걸고 해방 직후의 작품들 중 “민주주의민족문학의 이념”의 “침전물”로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 것을 모은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소설집』은 그 자체로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이를 통해 결성 초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내세웠던 조선문

학가동맹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그 실제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소설집』은 비교적 현실적 제약이 적었던 1945년 하반기에서 1946년 상반기 사이에 집필되거나 발표된 작품들을 담고 있어, 해방 직후 우리 문학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활로를 모색해 나갔는가, 제기된 문학적 과제에 대해 실제 작품들이 어떻게 응대해 나갔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진보적 리얼리즘의 스펙트럼 : 현실의 특수성, 그 소거 혹은 수용

대표적 좌익문학인단체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공히 창작방법론으로 진보적 리얼리즘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때 그 진보적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논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단체 내에 일군의 논자들은 진보적 리얼리즘을 설명하며 인민에의 복무와 역사를 선도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그러나 또 다른 논자들은 그와는 사뭇 다르게 객관적 현실이나 민중연대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식민지에서 갓 벗어나 미처 근대적 민족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당대 현실의 특수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다. 이르러야 할 목적지에만 주목하면 현실은 과정으로 일반화되고 그 특수성은 소거된다. 이때 진보적 과정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 된다. 그러나 그 특성이나 한계까지 포함하여 당대 현실의 특수성을 수용하고 이를 직시하는데 중점을 두면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 민주주의민족문학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대표적 작품을 선별·수록하였다는 『조선소설집』은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면모를 보여줄까.

1. 인민에의 복무와 영웅의 형상화

『조선소설집』에는 총10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수록 순서 및 저자, 기재된 집필 년도와 각 작품의 주된 시대적 배경, 사건 및 갈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수록작품 일람¹³⁾

작품명	저자	집필 년도
(1) 미스터 방	채만식	乙酉年 2.16 (1946. 7 『대조』 발표)
(2) 춘보(春甫)	박태원	丙戌年 7
(3) 소	안희남	1945. 11. 24
(4) 물쌈	박영준	1946. 6
(5) 압록강 (鴨綠江)	김만선	미기재 (1946. 6 『신천지』 발표)
(6) 유방(乳房)	박계주	미기재 (1943. 2 『조광』 발표, 개작)
(7) 코	김영석	1946. 1
(8) 역사(歷史)	박노갑	1945. 11. 22
(9) 산가(山家)	안동수	1946. 5. 17
(10) 쇠선(衰蟬)	홍구	1945. 12. 1

13) 김만선의 『압록강』과 박계주의 『유방』은 집필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채만식의 『미스터 방』은 을유년 즉 1945년 2월 16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때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압록강』의 경우 『신천지』 1946년 6월호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유방』은 1943년 2월 『조광』에 최초로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필 일자가 을유년으로 기재된 『미스터 방』의 경우 이 작품이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옳기로 판단되며, 1946년 7월 『대조』를 통해 발표되었다. 해방 전에 집필, 그 이후에 개작된 박계주의 『유방』을 제외한 전 작품이 대략 1945년 하반기에서 1946년 상반기 사이에 집필되었다.

표2. 시대적 배경 및 사건·갈등 일람

작품명	시대적 배경	사건 및 갈등
미스터 방	해방기	미군정에 기댄 기회주의자의 득세와 몰락 (해방기의 시대적 혼란 풍자)
춘보(春甫)	구한말 (홍선대원군 집권기)	경복궁 중건에 따른 철거와 이로 인한 불안
소	일제시대~해방기	징용
물쌈	일제시대	만주에서의 수전 및 저수지 건립
압록강 (鴨綠江)	해방기	만주로부터의 귀환
유방(乳房)	일제시대	죽음을 앞둔 부상병과 그 어머니의 상봉
코	해방기	‘코’ 바꿔치기 (해방기의 시대적 혼란 풍자-기회주의자의 도덕 불감증 비판)
역사(歷史)	해방기	시류 편승자의 집단적 등장과 과도한 정치적 열정에 따른 시대적 혼란
산가(山家)	일제시대	전향
쇠선(衰蟬)	해방기	여성인물의 정조, 여성 혁명가의 귀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군의 논자들은 진보적 리얼리즘을 설명하며 “인민의 문학으로서의 민족 문학의 건설에 자기 자신을 극기할 수 있는 작가만이 오늘의 현실을 가장 옳게 그릴 수 있다.”¹⁴⁾거나 “광휘있는 시대를-

14) 한효, 『진보적 리얼리즘의 길』, 『신문학』, 1946. 4.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이 새롭고 장엄한 현실을 똑바로 그려낼 수 있는 창작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창작방법의 구체적 슬로건을 내걸기 전에 먼저 어떠한 작가가 오늘의 현실을 가장 옳게 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지극히 간단하고 즉 인민의 문학으로서의 민족 문학의 건설에 자기 자신을 극기할 수 있는 작가만이 오늘의 현실을 가장 옳게 그릴 수 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한다...(중략)...그러므로 참으로 인민의 편이 된 작가는 자기임무를 인민대중의 과업에다 공연하게 결부한다. 그 창작의 충동은 인민대중에 대한 동감이고 가장 억센 진보적 이념이다. 이러한 진보적 이념에 의하여 쓰여지는 문학은 현실의 본질적 측면, 그 중추가 되는 역사적 경향, 승리의 과정에 있는 인민혁명의 근원 등 전형적 형상과 전형적 상태를 가장 바르게 묘사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거대한 역사적 국면을 떠메 나가는 새로운 세기의 영웅을 그려야 할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¹⁵⁾는 등 인민에의 복무와 긍정적 영웅을 말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우선 작가는 인민의 세례를 받아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재탄생한 작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목표하는 미래가 달성될 수 있다는 믿음까지 보여주는 영웅, 즉 민족적 전형으로서의 특별한 영웅을 그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선소설집』 전반에 걸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주는 긍정적 영웅을 형상화한 경우를 찾기로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실상 영웅이라는 이름에 값할 수 있는 인물을 그린 경우로는 홍구의 『쇠선』¹⁶⁾ 정도가 있을 뿐이다. 『쇠선』에는 혁명 운동을 하는 현숙, 인숙 두 자매가 등장하는데 특히 맏이 현숙은 제사공장을 다니다가 노동쟁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으며, 석방 이후 지하 활동을 위해 잠적했었던 인물이다. 여성 혁명가의 귀환이라는 소재를 다룬 『쇠선』의 경우 격정적 분위기와 나부끼는 깃발 등으로 감정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다.

우렁찬 소리다 씩씩한 노래다. 노래와 같이 많은 장정의 힘있는 구두소리
히만 젊은 이의 기쁨의 넘치는 노래다. 그속에 섞인 가느다랗고 맑고 강한
녀인의 노래 그것은 소성 어머니의 맏딸 현숙의 노래다. 맨앞에 뚜렷이 빛나
는 태극기를 들고 잃었던 내동리의 땅을 밟으며 잊었던 내 어머니의 품을 찾
어든다. 소성 어머니는 낫을 잃은 사람 모양으로 분명한 자기딸을 한참 바라

15) 한효, 『새로운 성격의 창조』, 『적성』, 1946. 3.

“대저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특히 오늘의 조선작가는 광휘있는 시대를—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거대한 역사적 국면을 떠메가 나가는 새로운 세기의 영웅을 그려야 할 임무에 직면하고 있다.”

16) 1946년 1월에 『소성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인민』에 수록되었다.

보다가야 『우리 현숙아』하고 부등케 안었다. 동리 젊은 청년 동맹원은 내 동리의 자랑 젊은 녀투사를 위하여 기를 흔들며 노래부르며 만세를 불렀다. (pp.242-243.)

인민에의 복무와 긍정적 영웅을 강조하는 입장, 조선적 구체화를 내걸되 혁명적 낭만주의를 지배적 원리로 하는 이러한 논리의 문제는 혁명적 낭만주의가 강조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느 순간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데 있다. 현실의 모순 극복을 내세우지만 걸맞지 않는 것들은 삭제되고 갈등이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낙관적 결론에 이르기 십상이다. 『쇠선』에서 역시 인숙과 그 친구인 옥희, 둘의 정조 문제를 둘러싼 주변의 시선과 그간의 갈등은 현숙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정리된다. 인숙이 종종 만나던 남자가 지하 활동을 하던 형부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인숙의 정숙함은 명명백백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 연인 ‘사이도’에 대한 옥희의 내밀한 감정은 고스란히 삭제되어 버린다.

『쇠선』을 통해 광휘있는 시대 및 영웅의 한 예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조선소설집』 전편에 걸쳐 현실의 본질적 측면과 역사적 경향 등의 전형적 상태에 대한 묘사나 거대한 역사적 국면을 이끌어가는 세기의 영웅을 형상화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제국주의 및 봉건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로 『춘보』, 『소』, 『물쌈』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들 작품의 경우 앞서의 논리에 따르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감을 드러내거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 개인적인 저항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의 면면을 담고 있는 풍자적 작품은 예외로 하더라도, 전형적 상태나 누구나 수긍할 만한 긍정적 인물을 담아내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2. 객관적 현실 및 민중연대성의 강조

「춘보」나 「소」, 「물쌈」 등은 상기 입장이 아니라, 진보적 리얼리즘에 대해 다른 강조점을 가진 논의에 의거할 때 보다 유의미해진다. 앞의 주장과는 달리 주관적 관념 보다는 오히려 객관적 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즉, 진보적 리얼리즘에 대한 상이한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남천은 리얼리즘에 대해 “객관적 현실을 주로 해서 주관을 그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¹⁷⁾ “리얼리즘이 아이디얼리즘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¹⁸⁾을 내린다. 이러한 논의는 일견 별반 새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미묘한 시기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그 나름 선명한 입장 표명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예컨대 「춘보」나 「소」, 「물쌈」 등은 앞서 서술된 논의에 따르자면 그 한계가 부각되지만, 객관적 현실이 주라는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자면 민중들이 처한 현실과 그에 따른 의식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리얼리즘을 구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나름 충분한 가치를 갖게 된다. 또한 이 외에도 조국이 해방되었음에도 “말할수없이비좁다는 차로 긴 여행을

17) 이 표현은 전국조선문학자대회 보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김남천, 「새로운 창작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6.

“세계관과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창작방법이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방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몇 개나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나는 창작방법의 기본적 방향으로서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의 두 개만을 단정하고 싶다. …(중략)…현실을 선입견을 갖지 않고 현실의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하는 태도가 리얼리즘이요, 현실에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여 그것으로써 현실을 재단하려는 창작태도가, 즉 아이디얼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다. …(중략)…그러면 이 두가지 기본적 창작태도는 선악이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일까. 우선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동등한 관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세계관에 대한 반작용에 있어서 우리는 리얼리즘이 아이디얼리즘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음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리얼리스트는 그가 가지는 세계관에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아이디얼리즘은 주관과 선입견이 앞서기 때문에 세계관에 대한 반작용은 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해야한다.”는 데서 귀국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다소 한심한 인물을 내세운 『압록강』이나 전향 후 산가에 침거한 채 우울감에 빠진 인물을 그린 『산가』 역시 납득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은 어떠한 관념적 디자인보다 준엄”하기 때문이다.

『압록강』의 원식은 해방된 후 석 달 후에야 안봉선에 오른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추위였다. 애초에 원식에게 해방된 조국이라는 것은 비좁은 차로 긴 여행을 해야 한다는 사소한 불편함의 감수조차 망설이게 하는 그런 정도였고, 정작 그의 등을 떠민 것은 추위로 상징되는 생활의 곤란이었다. 다다미방에서 생활하며 귀로의 불편함 때문에 귀환을 망설이던 원식에게서는 민족적 영웅의 풍모는커녕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

사상범으로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전향을 하고 그 대가로 물리적 자유를 얻은 만호(『산가』)는 또 어떤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만호는 외파로 떨어진 산가로 가 자발적 윤패 생활을 하며 괴로워한다.

이튿날부터 만호는 자리에서 이러나지를 못했다. 이렇다 짝어 내서 아픈 데는없으나 가슴이 답답하고 연신 시근 땀이 흐르며 가끔 허열이 일었다. 기동할 기운도 없고 밥 생각도 없고해서 신내가 나는 찬밥덩이를 한슬 떼어뜯이틀 동안을 그냥 누어 있었다.…(중략)…만호는 외계(外界)의 자유가 자유없는 감옥 보다 더 그에겐 부자유한 것 같았다. (pp.207-209.)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를 산가로 내몬 채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만호의 면면은 아무래도 “새롭고 장엄한 현실”이자 “광휘있는 시대”와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에게서는 원식만큼의 역동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압록강』이나 『산가』는 전형적 상태나 영웅의 형상화 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아이디얼리즘이 아닌, 객관적 현

실을 주로 하는 리얼리즘을 강조하는 논리에 따르자면 이와 같은 작품들은 현실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긍정적인 전범으로서의 주인공을 내세우거나 발전과 진보의 길만을 제시하지 않고 “현실의 객관적인 갈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다 가치 있다 할 것이다.

창작방법론에 있어 객관적 현실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의는 민중연대성을 주장하는 입장과도 연결된다. 역사를 선도하는 긍정적 영웅이란 달리 말하자면 강건한 이념을 지닌 전위(前衛)와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임화는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에 대한 집착을 비판한 바 있다. 그가 들고 있는 두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 변혁기에는 민중적 연대가 당면과제라는 것, 다른 하나는 노동자계급의 이념이 초역사적 이념형이 아니라 현실을 매개로 구현되는 역사적 원리라는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제기된 민중연대성은 인물과 환경의 부조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자면 주체와 사회의 대립, 개성과 사회성의 조화가 필요하며 “사회성과 모순하지 않는 진정한 개인, 평판한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내부와 밀접히 연락되어 있는 현실세계”¹⁹⁾를 그리는 것이 창작의 구체적 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내부와 밀접히 연락되어 있는 현실 세계란 어떤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힌트는 박노갑의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역

19) 임화, 「문학의 인민적 기초」, 『중앙신문』, 1945.12.8-14.

“일찍이 우리가 문학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주인공, 잃어버렸던 현실세계를 인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회성과 모순하지 않는 진정한 개인, 평판한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내부와 밀접히 연락되어 있는 현실세계를 우리가 특권계급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 문학의 여러 가지 차이와 상이에도 불구하고 인민 속으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문학과 인민과 맺어진 인연이란 것은 나는 벌써 숙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의 주인공 만오는 해방 전 고향 마을에서 소작쟁의를 주도했다가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혁명가의 전범이라 할 『쇠선』의 현숙과는 달리 일제시대 지원병, 보국대, 징용 등을 피하기 위해 반장을 맡기도 했었고 징용 때문에 마음을 졸이느라 해방이 되었을 때에는 “개인의 역사를 잊은 제도 이미 오래 전 일이 되고”말았다고 말한다. 해방 후에, 인연이 있었던 정당 수령의 집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던 만오는 정치인과 민중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 이런저런 모임을 다니는 동안 자신 역시 점점 민중과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 만오는 결국 귀향하여 야학 운동을 펼치게 되며 이를 통해 “농민의 역사”를 짓기로 결심한다. 일제시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해방 후 서울을 찾은 후에도 사회적 현실과의 관계 하에서 만오는 윤리적 반성을 계속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역사적 현실을 이끌어갈 주체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민족문학의 이념”의 “침전물”임을 내세웠던 만큼 『조선소설집』은 조선문학가동맹이 말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의 다양한 면면을 확인케 한다. 사실 창작방법론으로서의 진보적 리얼리즘이라는 대전제는 계열을 떠나 소위 좌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현실 선도를 위한 낭만주의의 강조는 물론 현실의 특수성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주장하며 교조적이고 배타적인 면모를 탈각하려는 노력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진다. 따라서 어떤 논리에 부합하는 작품이 다른 논리와는 상충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그리고자 한 것과 그려진 것은 일면 겹쳐지면서 또 다른 일면으로는 미끄러지고 충돌하기도 한다. 다만 다양하게 갈리는 논의를 살피는 앞의 과정을 통해서 『조선소설집』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인민에의 복무”보다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주류를 이루었던 논이인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계기로서 내포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의 구현에 보다 가까움을 알 수 있다.

IV. 공동적 주체를 위한 호명과 응대 : 개별적 · 집단적 정체성의 재구성

앞서 진보적 리얼리즘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기반해 간략하게나마 『조선소설집』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문학가동맹이 말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고자 한 것과 그려진 것 간의 관계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건과 갈등인가 하는 질문에 이어 각각 형상화된 인물과 사건 및 갈등을 통해 『조선소설집』 전반을 아울러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에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자기비판을 통한 남성의 주체화와 ‘순결’한 여성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조선에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는 사회를 유지해 온 기존 질서의 붕괴, 식민 규율에 따라 형성된 주체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해방은 갑자기 부여된 일종의 거대한 과제가기도 했던 것이다. 식민 체제 하에서 구성된 황국 신민으로서의 주체 대신 집단적이며 자율적인 새로운 주체가 요청되었다. 박노갑의 『역사』, 안동수의 『산가』, 홍구의 『쇠선』 등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그 나름의 응답을 보여준다. 민족으로 지칭된, 자율적이고 공동적인 주체의 요청과 관련해 이들은 우선 각각의 개인 주체의 재정립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해방 이후 전향이나 친일 문제는 분명 뜨거운 감자였지만 이를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해방 전을 배경으로 한 『산가』는 바로 이 전향 문제를 주된 소재로 다루고 있다. 만호가 내놓은 전향의 변은 “피”였다. 자신의 핏속에는 생리적으로 혁명가적 요소가 없는데,

피의 전통을 역행하려 하다 보니 생리적인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을 믿었지만 자신의 현실적 지반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만호를 산가로 내몰고 그곳에서도 허열에 시달리게 한 진정한 갈등의 핵심은 피가 아니라 생활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얻고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 이런 소박한 생활을 만호는 “현실”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그의 “리념”이 반발하고 “생리”까지가 타협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로서의 생활을 끌어들이으로써 전향은 더 이상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인간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²⁰⁾ 전향을 한 것은 만호이지만, 그 죄는 더 이상 만호만의 것이 아닌 게 되는 셈이다.

『결국 아버지나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야……아버진 이십오년간 열심히 주산알 튀긴 공으로 은행 지점장대리가 됐지만 나도 그런거나 바랄 수밖에 별 도리가 있겠는가 응 별도리가 있겠는가…… 한해 두해 나한 먹어가고 밤이면 잠자리가 쓸쓸하고 아모래도 장갈 가야 하겠지 응 장갈가야해…… 그리고 보면 자식새긴 생기고 나도 몇해안하 봉톨 뒤집어 쓸날이 오고야 말게야 허 허 허……』 인규는 한바탕 웃고나서 술잔을 들었다. 인규의 우습 소리가 너무 허무적임에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만호는 『하지만 자넨 생활에 대해 그만한 애착이라도 갖었으니 나 보단 낫네』 그러한 말을 하고 나니 문득 구슬은 생각이 복바쳐 오르며 두눈으로 눈물이 흘러 내렸다. (p.215.)

20) 이런 측면에서 『산가』의 세계는 무시간성의 세계이다. 정호웅은 해방 후 자기비판소설들 전반이 추상적 무시간성 혹은 서사적인 무시간성의 세계로의 귀착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자기비판론을 크게 근본적 자기비판, 민족적 자기비판, 세계관적 자기비판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자기비판소설들 전반이 지니고 있는 동일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심지어 만호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더 나아가서는 신념의 수호자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만호는 이렇게 전향의 죄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정리한다.

만호가 투쟁과 전향의 문제를 현실 및 생활과의 대비 속에 놓음으로써 이를 보편화, 추상화하고 있다면 『역사』의 만호는 소작쟁의를 이끌었던 것에 대해서 계통있는 운동이 아니라 “반항 안할 수 없는 반항을 하여 본 것”이라고 낮추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 “네 아무리 나를 집어 삼키려 들어도, 나는 먹히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념을 정말 가졌더냐”를 되묻는 윤리감을 보여 준다.²¹⁾ 『산가』가 생활과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인규의 말끝에 생활과 타협하지 못하는 만호의 눈물을 설정함으로써 그를 오히려 피해자이자 윤리적인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다면 만호는 자기 합리화 대신 거듭된 반성 끝에 스스로를 해방된 조선의 주체로 정립해 낸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쇠선』은 순결한 여성 혁명가를 등장시켜 노동과 혁명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정작 흥미로운 것은 연애와 정조라는 문제에 따라 나뉘는 여성 인물들의 면면이다. 순결한 동생 인숙 그리고 조선인 혁명가 남성과 결혼한 언니 현숙은 칭송되지만 일본인을 애인으로 두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옥히는 “왜놈에게 몸을 팔고 맘을 팔고 조선을 파는 역적년”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다. 여성은 몸도 마음도 순결해야만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워진다.²²⁾ 이에 반해 남성은 자기합리화에

21) 『역사』에 심도 깊은 자기비판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평가는 강심호의 『박노갑 소설의 현실인식 고찰』(『한국학보』 114집, 2004.)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2) 박지영은 해방기 여러 텍스트에 등장한 여성 혁명가의 형상을 논의하며, 아버지가 부재한 해방기 혁명 서사에서 어머니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진보적 표상이었고 여성

그치든 혹은 윤리적 반성을 통한 극복으로 나아가든 자기반성과 비판을 통해 다시금 주체로 서는 것이다.

2. 민족의 안과 밖, 직접적 동일성을 통한 차이의 무화

「역사」, 「산가」, 「쇠선」 등을 통해 개별 주체의 재정립 과정을 볼 수 있다면 「유방」과 「압록강」은 동일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하다. 박계주의 「유방」은 1943년 『조광』을 통해 발표되었던 작품을 개작한 것이다. 개작 과정에서 도입 액자가 크게 바뀌고 종결 액자가 첨부되었다.²³⁾ 그러나 이런 변화는 친일이나 항일이나와 같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작품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들에 불과하다. 정작 작품의 핵

노동자인 누이의 형상화는 혁명기 노동자 주체의 소환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이어 결국 어머니들이 희생되고 이를 딛고 아들(오빠)이 일어섬으로써, 누이나 어머니의 호명이 결국 남성 주체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박지영, 「여성 혁명가의 귀환, 그 이후-해방기 여성혁명가의 형상과 가족 서사」, 『여성문학연구』24호, 2010.)

- 23) 개작 전에는 이야기의 전달자가 일제의 침략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김석원 부대장이었지만 개작 후에는 그 전달자가 “제정 일본의 학정자의 채쪽에 못이겨 지원병이라는 미명 밑에서 이를 갈며 출정했던 학도병 정태호군”이 된다. 또한 개작 전에는 없었던 종결 액자에서 전달자 정태호는 김인철의 어머니를 조국조선과 일치시켜 해석한다. 이 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테면 액자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격렬히 싸우며 “전화 속을 헤엄치다가 랑자관 전투에서 부상”당하게 되었다는 설정 대신 기회를 얻어 연안으로 같이 탈출할 것을 약속하곤 하다가 태행산맥 전투에서 불의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바뀌었다는 점, 반일적 성향의 몇몇 몽충담이 더해졌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오양호는 「이민문학론(Ⅱ)-박계주의 작품을 중심으로」(『연남 어문학』 제4집, 1977.)에서 이러한 측면에 집중해 이 작품이 기독교적 인간주의와는 다른 민족적 박애주의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해당 작품의 개작을 통해 이뤄진 부분에만 집중한 의미 부여로, 민족의식에 따른 저항적 문맥에만 주목하게 되면 개작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을 놓쳐 오히려 작품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하겠다.

심은 부상 때문에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 죽음에 임박한 한 청년, 김인철과 그 어머니와의 상봉에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 시각도 청각도 잃어버린 채 죽음만 기다리는 부상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애쓰는 군의와 간호부들,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선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어머니 그리고 모자 시간에서만 가능할 특별한 촉각을 통한 서로의 확인. 그 과정을 지켜보며 흘리는 조선인 정태호의 눈물과 일본인 간호부들의 눈물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개작된 작품 『유방』은 표면적으로는 일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식을 드러내어 식민 지배 권력 일본과 피식민 조선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자간의 애절한 감정, 보편적 인간의 감정과 휴머니티로 민족을 위시해 그 모든 차이를 무화시키고 있다.

『유방』이 휴머니티로 민족이라는 경계 간 차이를 무화시켰다면 『압록강』은 민족 내의 차이를 무시한 민족 내 동일성을 보여준다. 원식의 민족적 정체성은 “귀환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새롭게 분할되고 재편되기 시작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는 상징적 월경(越境)”이라는 지적 그대로 귀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확보된다.²⁴⁾ 서울의 풍경조차 기억 속에서 가물거려던 원식은 기차가 움직이자 서서히 조선과 그곳의 가족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된다. 안동에 도착해서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즉 압록강을 건너기 전까지 원식은 크게 세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조선인 아버지를 둔 박용수라는 쏘련병을 만나게 된

24) 귀환을 정체성과 연결한 논의는 김태운(『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어문연구』25집, 1994.)이나 최정아(『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33집, 2009.) 등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표현은 최정아의 논문 p.361에 수록된 부분이다. 최정아는 귀환을 크게 만주로부터의 귀환과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전자는 ‘회복과 결속의 상상력,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로 후자는 ‘정화와 재생의 상상력, 순혈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정리하고 있다.

것이고, 두 번째가 피란민들을 버려두고 도주한 일본인 기관수를 붙잡아 온 일, 세 번째가 ‘파라치브쓰’로 아이와 아내를 잃은 젊은 경상도 남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모금해 전달하게 된 일이다. 조선인 아버지를 둔 쏘련병은 친근한 존재로 원식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생기를 찾게 했지만 일본인 기관수는 이천여명의 피란민들을 내동댕이치고 도주해 원식을 분노하게 한다. 쏘련병이 ‘혈통’적 친근감의 회복을 보여준다면 일본인 기관수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타자의 배제 과정을 보여준다. “메져야지.”라는 측과 “그간놈들은 당장 죽여버려야해.”라는 측 사이의 논쟁을 거친 후, 일본 피란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며 때론 “가슴이 찌르르”함을 느꼈던 원식은 이제 “왜종”을 보면 “치를 떨”게 된다.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역으로 민족 내 동질성을 확보해 가던 원식은 같은 조선인인 경상도 남자에게 모금을 해 줌으로써 온전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원식의 귀환 과정은 잃었던 민족적 정체성의 회복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때의 민족은 조선인의 피가 섞인 쏘련병 그리고 잔류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대립적 구도를 통한 혈연적·심정적 동일성, 피억압자로서의 동일성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유방』과 『압록강』은 배제의 범주와 그 원리 작동에 있어 결정적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민족 및 식민 권력에 대해서 역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 단위를 넘어선 보편적 인간성이든 혹은 ‘상상된 공동체’이든 어느 쪽이건 간에 범주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개별성과 차이보다는 직접적 동일성으로 기울어진 집단적, 공동적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인다.

3. “이질성의 격조”, 차이를 내포한 동일성

일군의 『조선소설집』의 작품들이 개별 주체성의 회복과 재정립의 과정을 그렸고 다른 일군의 작품들이 개별 주체가 아닌 집단적·공동적 주체로서의 민족, 차이를 없애는 동일성의 두 측면을 보여주었다면 채만식의 「미스터 방」, 박태원의 「춘보」, 안희남의 「소」, 박영준의 「물쌈」, 김영석의 「코」 등은 식민 잔재가 온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모리배’가 들끓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이와는 또 다른 형태의 동일성 즉 민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 내에 차이를 내포한 동일성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유방」과 「압록강」이 조선 안과 밖에서 차이를 지워내고 있었다면 이들 작품군은 은연중에 조선 민족 내부에서의 차이와 이질성을 노출시킨다.

박영준의 「물쌈」과 김영석의 「코」는 비교적 익숙한 방식으로 상이한 조건에 놓인 인물군의 대립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쌈」의 주된 갈등은 황튼장과 종석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황튼장의 부정성(否定性)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식민 지배 체제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을 사람들 전체를 억압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중잘사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체제 친화적이며 부유한 부정적 인물과 빈한한 농민의 갈등인 것이다. 「코」는 「물쌈」과 달리 해방 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풍자 소설이지만,²⁵⁾ 일제 치하 평평거리며 살았던 약삭빠른 인물 안희규(安喜奎)와 그의 행랑채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성실하

25) 김영택은 「해방공간 소설의 풍자양상」을 통해 풍자 소설을 ‘해방된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사시적(斜視的) 관점에서 쓴 소설’로 정리한 뒤 그 양상을 친일 세력의 재등장과 왜곡된 해방, 시류 편승자의 허세와 도덕 불감증, 토재개혁의 모순과 농민의 운명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조선소설집』의 첫 번째 수록 작품이기도 한 「미스터 방」은 시류 편승자의 허세와 도덕 불감증을 다룬 작품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는 이 논의의 대상 작품이 아니지만 이러한 분류를 따르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고 생각 바른 문덕아범을 대립구도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구도 상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코를 바퀴치기한다는 황당한 설정으로, 우화적으로도 느껴지는 「코」는 일제 치하에서 권력에 기대 권세를 누리던 인물들, 해방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애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개」로 비유, 희화화하며 비판하고 있다.²⁶⁾ 안희규와 같은 부정적 인물은 채만식의 「미스터 방」에서도 확인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미스터 방」은 우연히 S소위의 통역이 됨으로써 벼락출세한 「코빼투리 신기리 장수」 안하무인(眼下無人) 방삼복과 그런 인물의 힘을 빌어 해방 후에 잃은 재산을 되찾고 분풀이를 하려는 백주사를 그리고 있다. 일제가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한 미군정의 권력에 기대 권세를 부리는 무지한 방삼복이나 친일파라고 할 백주사 모두 해방된 조국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 일신의 안위를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다.

「물쌈」과 「코」에서는 익숙하고 선명한 대립 구도로 도식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면 박태원 최초의 역사소설로 일컬어지는 「춘보」나²⁷⁾ 안희남의

26) 김영석은 해방기 작품 활동과 평론 활동을 병행했다. 초기 조선문학가동맹 지도부들의 대거 월북 이후 대중화운동과 구국문학론 등을 펼쳤다. 그는 근로대중이 읽어서 공감할 만한 작품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해방 이후 다수의 작품들이 재미가 없고 생경한 것은 이들의 요망을 망각한 데서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방 전후의 작품들을 다룬 임무출의 「김영석론」(『영남어문학』17집, 1990.) 및 김영석의 전체 소설을 생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경재의 「김영석 소설 연구」(『현대소설연구』45집, 2010.)를 비롯해 다수의 논자들이 해방 전의 작품인 「형제」나 해방기에 발표된 「전차운전수」, 「폭풍」 등에 주목한 바 있다. 노동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던 해방기 김영석의 작품 세계에서 풍자적·우화적인 「코」는 비교적 특이한 성격의 작품이기도 하다.

27) 1930년대 대표적 모더니즘 작가로 꼽히던 박태원은 해방 이후 역사소설로 관심을 돌린다. 이길연(『박태원이 월북 후 문학적 변모 양상과 「갑오농민전쟁」, 「우리어문연구」 40집, 2011.)은 박태원이 해방 후 역사전기와 역사에 관한 소설을 발표함을 지적인 후, 정현숙을 인용해 박태원의 역사전기는 일제 청산과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인 명제를 수용한 것으로 민족주의와 민중의식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소」는 내부의 이질성과 차이를 부각시키되 대립 구도에 있어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게 한다. 박태원의 「춘보」는 대원군 치정 하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평범한 서민들의 세대와 생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박태원은 「춘보」에서도 경복궁 중건이 진행되던 시절 허물어진 경복궁 담 근처에 집을 짓고 살던 가난한 인물 춘보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다. 지계꾼으로 일하는 춘보의 고단한 일상과 대궐 담 밑에 지어 놓은 오막살이가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안고 잠들었던 그의 꿈이 주된 내용이다. 실질적 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해나가야 하는 고단함은 여전히 소박한 보통의 인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주어져 있었다. 꿈 속에서는 죽어도 할 말은 하겠다며 호기를 부리던 춘보는 막상 꿈에서 깨자 묵묵히 미장이 신서방을 따라 하루 별이를 위해 일을 나간다. 이런 춘보는 「소」의 삼룡이와도 겹쳐진다. 조선시대 가난한 백성 춘보의 삶에는 억울하게 소를 빼앗기고 징용으로 끌려갔다는 삼룡이의 삶이, 또 해방 이후 여전히 고단한 일상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던 대다수 서민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소」의 마지막 장면에는 소가 죽은 것처럼 삼룡이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작품 속 화자와 그런 화자의 생각을 넘어 이사장의 소를 끌어오겠다고 다짐하는 삼룡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²⁸⁾

소가 없는 빈 오양간은 보송보송했다. 그것은 보기도 드문 부자연하고, 불유쾌한 모양이었다. 소여물담은 구룡은 바짝 말르고, 먼지조차 보얇니 없었다. 내가 그앞에 멍하니 섰으려니까, 삼룡이는 그제서야 소생각이 난 모양, 『홍

28) 안희남 본인이 1944년 징용되어 탄광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음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체험에 기반해 「소」 외에도 안희남은 「오욕의 거리」, 「탄갱」, 「철쇄 끊어지다」, 「불」 등 징용을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소가있어야지유? 제-기……소가. 제 대신 나가 죽었으니까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말이 나의마음에와서 꼭 스며들지를않았다. (아-니. 소가 죽은것처럼, 삼룡이도 역시 죽었다!)하는 생각이 났다. (…중략…) 저 보충보 송하고 말론 쇠오양 인간처럼, 먼지않은 빈방 문을 닫어둔채, 늙은 어머니와 그 안해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은 문밖에서서 헛되이, 기다리며 울고있을것이 아닌가. 나는 문득 삼룡이를 쳐다봤다. (역시, 소다!) (…중략…) 『저놈의 소 저놈의 이사장놈의소를 내가 끌어와야 지……』 삼룡이는, 한편 언덕 소있는곳을 가르키며, 험악한 낮빛으로, 전혀 내생각과는, 판판인 말을하였다. (pp.84-85)

이는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의 문제와 해방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서로 다른 조건과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하겠다. 소소한 일상적 기대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피로한 범인들의 삶의 모습 등을 통해 이들 작품들은 직접적인 비판 혹은 강렬한 인상의 집단행동 묘사 없이도 “이질성의 격조”와 그것을 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식케 한다.

식민지 체제 하에서 동일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은 금기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금기가 풀린 직후에는 피식민이라는 하나의 공통성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개인적 자아와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겹쳐질 수 있었던 시기는 그리 길지 못했다. 식민 권력의 틀이 벗겨졌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종류의 차이와 개별적 조건의 상이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그리고 반제국주의적·반봉건적·민주주의적 민족문화, 대중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이익과 발전을 담보해내는 문학 그리고 포용적이되 의식의 소산이자 이질성의 격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의 민족을 호명했다. 이들이 말한 민족은 개인적 자아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직접적 겹쳐짐 대신 그 내적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특정의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정리, 결집이 강조되며 동일성은 재소환된다. 대개 해방 직후에 집필된 작품이라는 점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조선소설집』이 보여주는 것은 이 둘의 혼재 혹은 둘 사이에서의 부딪침이나 망설임이라 하겠다.

『조선소설집』의 면면 중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세대 및 이념적 성향의 강도를 두루 아우르는 필진의 다양성이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이 자신들의 문학적 활동의 주요 결과물로 내세웠던 『조선소설집』은 “아이디얼리즘”만을 내세우는 대신 필진만큼이나 다양한 성향의 작품들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 리얼리즘을 통해 선도와 복무의 문학보다는 가급적 많은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적 연대의 문학을 모색했으며, 『조선소설집』은 그 노력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국가건설 및 새로운 민족문학을 과제로 한 시기, 민주주의 민족문학 성취를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리하여 적절한 첫 걸음이라고 할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고민과 탐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자연스러운 진전이 불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그 출발점에 있어서만큼은 정당한 위치에 서 있었다 하겠다.

V. 결론

제국은 소멸하고 국가는 부재했던 8.15 직후, 이 시기는 국가 건설과 새로운 문화 건설이라는 녹록치 않은 지상의 과제가 주어졌던 시기였고 그와 동시에 이 과제를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고자 한 열망 역시 컸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문학가동맹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민족문학이라는 이념이었다.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에 기초한 논자들이 하

나의 단체를 이루었던 만큼 조선문학가동맹의 목소리는 균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중 조선문학가동맹의 주류는 포용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중적 결합체로서의 민족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대중적 연대의 문학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진보적 리얼리즘을 내세웠다.

물론 방법론의 탐색이 곧장 현실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선문학가동맹이 그간의 자신들의 문학활동 중 가치 있는 것으로 꼽고 있는 『조선소설집』을 통해 이들이 제기한 진보적 리얼리즘의 실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주장이 있었던 만큼 작품의 성향 역시 오롯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조선소설집』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인민에의 복무나 긍정적 영웅의 형상화 보다는 “객관적 현실을 주로 하는 리얼리즘”이나 민중연대성을 강조하는 쪽에 보다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도하였든 아니든 『조선소설집』의 작품들 전반은 민주주의 민족문화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모색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본 논의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창작방법론 및 작품과의 관계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며, 이를 둘러싼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다. 『조선소설집』 등의 간행은 물론 『문학』의 임시특집호가 마련되는 등 조선문학가동맹의 경우 창작에 대한 관심이 분명했던 만큼, 실제 작품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를 살피는 작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여러 논자들의 입장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는 작업과 창작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가며 제기된 보다 다양한 내용들 즉 민족형식의 습용문제, 문학유산의 계승방법, 국어재건 및 신인육성 문제 등 세부적인 측면들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송기한·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태학사, 1991.
신형기 엮, 『해방3년의 비평문학』, 세계, 1988.
조선문학가동맹 소설부위원회편, 『조선소설집-1946년판』, 아문각, 1947.

2. 논문 및 단행본

- 강심호, 「박노갑 소설의 현실인식 고찰」, 『한국학보』 114집, 2004, p.152-179.
권영민,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 운동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김영택, 「해방공간 소설의 풍자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17집, 2005, pp.31-56.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김태운,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어문연구』 25집, 1994, pp.349-360.
남원진, 「해방기 비평 연구 I」, 『겨레어문학』 제29집 2002, pp.75-97.
_____, 「해방기 비평 연구 II」, 『겨레어문학』 제30집 2003, pp.195-250.
박지영, 「여성 혁명가의 귀환, 그 이후-해방기 여성혁명가의 형상과 가족 서사」, 『여성 문학연구』 24호, 2010, pp.181-223.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이경재, 「김영석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45집, 2010, pp.299-326.
이길연, 「박태원의 월북 후 문학적 변모 양상과 『갑오농민전쟁』」, 『우리어문연구』 40집, 2011, pp.121-144.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조선문학가동맹편, 『조선시집』, 아문각, 1947.
조선문학가동맹농민문학위원회편, 『토지』, 아문각, 1947.
최정아,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33집, 2009, pp.357-395.
하정일, 「해방기 민족문학론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on Methodology of Korean Writers Alliance - Focusing on the 1946 Version of 『Collection of Korean Novels』 -

Park, Pil-Hyeon

Korean Writers Alliance is one of representative left-wing literature group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hich was established on Dec 13th, 1945. It set forth progressive realism as its creation methodology under the banner of national literature. 『Collection of Korean Novels』 is the anthology published by Korean Writers Alliance in June, 1947, risking its name and collecting what had been evaluated to be meaningful as the “precipitate” of “the ideology of democratic national literature.”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specific aspects and meanings of the creation methodology of progressive realism through 『Collection of Korean Novels』.

In this respect, 『Collection of Korean Novels』 helps confirm various sides of the progressive realism asserted by Korean Writers Alliance. It officially claimed democratic national literature and progressive realism, but, in fact, different positions existed inside it. Some insisted on “service for the public” or the embodiment of positive heroes, and others argued “realism mainly with objective reality” or bond of the people. Accordingly, what coincided with one theory didn’t necessarily satisfy all stances. Sometimes, what accords with a logic can rather contradict with others. Because of this, what was meant to express and what’s been depicted are usually overlapped, and simultaneously, at odds with each other.

Korean Writers Alliance eventually pursued the literature which could embrace as many people as possible for the bond of the public through progressive realism, rather than the literature of guidance and service. 『Collection of Korean Novels』 displays one side of that effort. As there were various kinds of discussion going on, the tendency of the works also was not fused

into one, but ultimately, a series of works in 『Collection of Korean Novels』 were closer to the realization of “progressive realism that implies revolutionary romanticism as its motivation” emphasized by those consisting of the majority of Korean Writers Alliance. It’s more true in that it held works as various as their authors, instead of asserting only “idealism.” Moreover, these diverse works showed the process of deliberation and search for the reestablishment of identity, which could not be avoided for the accomplishment of democratic national literature, and therefore, which was a proper first step, during the time with the tasks of the foundation of a nation and new national literature.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of the times after it made its natural development impossible, but at least at the starting point, it was standing on the right position in its own way.

Key Word : Korean Writers Alliance, Creation Methodology, Collection of Korean Novels, progressive realism, reestablishment of identity

박필현

소속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156-830)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2 엠코타운 애스톤파크 204동 1401호

전화번호 : 010-3376-1171

전자우편 : epokhe@daum.n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